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8>

무심(無心)이 곧 부처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목전의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당 속의 것이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은 유행의 부처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곧 마음이다.”
학승이 말했다.
“곧 마음이라고 해도 한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무심(無心)이다.”
학승이 말했다.
“유심과 무심을 제가 선택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유심이나 무심은 모두 네가 선택하는 거야. 달리 노승의 지시는 필요 없어.”

問 如何是目前佛
師云 殿裡底
云 者箇是相親佛 如何是佛
師云 卽心是
云 卽心猶是限量 如何是佛
師云 無心是
學云 有心無心還許學人揀也無
師云 有心無心總被你揀了也 更
教老僧道什麼即得

무심이 부처라는 말은 이미 잘 알려진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줄 알아야 한다. 깨달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어떤 사실에 대해 깨달으면 정말 그렇다고 깊이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그냥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되어 뇌에 저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식은 중요한 순간에 있어버린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잊어버리고, 슬픔이 일어날 때 잊어버린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무심이 나의 본래 마음이고 참 부처임을 깨달은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슬픔도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무심이 부처임을 깨달은 사람은 유심과 무심을 다 사용한다. 유심이 필요하다면 유심을 사용하고 무심이 필요하다면 무심을 사용한다. 나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용한다. 세상의 온갖 고통에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부른다.

깨달은 사람은 삼라만상이 곧 부처인 것을 안다. 산, 나무, 물, 대지, 공기 등. 우주와 자연은 그대로 부처이다. 스스로 우주이고 스스로 자연이다.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에 맞는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간다. 모든 부처가 그러했듯이.

학승이 물었다.
“멀리서 스님을 뵈기 위해 왔습니다.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해.”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나의 가풍이야.”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사해(四海=사방)로부터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바다이지만 나는 바다가 아니야.”
학승이 물었다.
“바다 속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깨달은 사람은 삼라만상이 곧 부처인 것을 알아

진리의 정점은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통해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의 낚시에 한 마리가 걸렸어.”

問 遠遠投師 未審家風如何
師云 不說似人
學云 爲什麼不說似人
師云 是我家風
學云 和尚既不說似人 爭奈四海來投
師云 你是海我不是海
學云 未審海內事如何
師云 老僧釣得一箇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주선의 묘미이다. 독자들은 조주 스님이 수많은 말을 하지만 말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 조주 선사의 뜻을 알겠는가. 이것을 안다면 선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다.

바다는 중생계를 비유한 말이다. “그대는 바다이지만 나는 바다가 아니야”라는 말은 그대는 중생계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즉,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도 나는 중생이 될 수 없고 선을 실천하기 위해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승이 가풍을 묻던 주제에서 벗어나 돌연 “사바세계를 어떻게 보십니까?”하고 사바세계에 관한 질문을 했다. 가풍에 대한 말미에 “잘 알겠습니다”라는 식으로라도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다른 주제를 들고 나오는 학승에게 “그렇게 주제를 잃고 말에 따라다니다가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 꼴이 되고 말아”하고 일침을 준 것이다.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항상 그렇게 유혹당하면서 사는 것 밖에 더 뭐가 있겠어” 라는 식이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직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은 우선 놔두고 자네는 이제까지 무엇을 들어왔는가?”

問 作何方便即得聞於未聞
師云 未聞且置 你曾聞箇什麼來

불교는 말할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곳을 일라고 강조한다.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왜 굳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진리의 정점은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진실은 항상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말과 명칭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의미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말과 명칭이 진실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말과 명칭과 생각에서 진실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진실은 항상 저변에 있다.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말과 명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그곳이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을 안고 출가한 학승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법문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네가 이제까지 들은 것은 무엇인가?” 하고 돌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잘 생각해봐라. 상반되는 이쪽과 저쪽은 서로 맞물려있다. 이쪽을 안다면 저쪽을 알고 저쪽을 알면 이쪽도 알게 돼있다. 그동안 무엇이 들어왔던 각종 진리를 다 버려보아라. 그런 다음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거기 남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쪽의 소식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19 진혈청료선사어록

깨침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진혈의 어록으로는 <진혈청료선사어록(眞歇淸了禪師語錄)>과 <진주장요화상경의록(眞州長蘆了和尙劫外錄)>(만속장 소재), <진혈요선사어(眞歇了禪師語)>(속개고존속어) 수록이 전한다. 곧 진혈청료(眞歇淸了: 1088-1151)의 상당법어와 <신심명>에 대한 염어(拈語)를 모은 것이다. 진혈청료는 조동종의 법맥을 계승한 선사로서 단하지순의 문하에서 광지정각과 동문수학했다. 때문에 스승인 단하지순과 동문인 광지정각과 더불어 조동종의 교의를 계승하고 그 수행방법으로서 목조선법을 주창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진혈의 휘는 청료(淸了)이고 도호(道號)는 진혈(眞歇)이다. 이 도호는 선종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도호이다. 진혈이라는 말은 자신을 지칭한 말이고, 또한 자기의 종풍을 가리킨 말이다.

진혈은 진정한 휴혈(休歇)로서 참된 깨침을 의미한다. 이 말은 목조의 목을 진정한 휴혈로 교묘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진혈의 속성은 웅(雍)씨로서 11세에 출가하고, 19세 때 구족계를 받고 성도의 대자사에서 <원각경> <금강경> <기신론> 등을 배웠다. 또한 아미산에 올라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이후에 단하산의 자순선사에게 참론해 공경이전의 자기라는 문답을 통해 깨쳤다. 36세 때 사법하고 이후로 겹외(劄外)의 가풍을 진작해 목조선법을 크게 일으켰다. 또한 당시에 간화선을 주창했던 대혜종교가 진혈의 선법에 대해 가했던 목조선 비판이라는 사실은 간화선과 목조선의 상호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진혈청료의 어록은 그의 ‘탐명’에 의하면 두 가지가 세상에 유행했다고 한다. 하나는 <겹외록>으로서 만속장경에 현존하고, 다른 하나는 설봉산 주지시절의 어록인 <일장록(一掌錄)>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겹외록>은 진혈의 1128년 6월에 장로산을 물러난 41세 이전까지의 기록이다. 그리고 <일장록>은 43세부터 48세까지 설봉산에서 주지를 했는데 47세 2월 이전까지의 기록이다. 진혈의 선법은 <겹외록>이라는 명칭이 보여주고 있듯이 겹외라는 말로 가장 잘 대변된다. 겹외라는 말은 송대 조동종풍을 표방하고 전승해 온 대표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겹외의 종풍은 세계가 성립하기 이전, 그리고 분별의식이 생기기 이전, 곧 위엄난만·공경이전의 소식을 곧바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한다. 겹외의 소식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로 조용히 앉아 좌선하는 모습을 찬탄한 노래로서 진혈의 나이 36세 때에 쓴 ‘선회계묘연좌자찬’의 내용이 있다.

삼십 육년 동안 허둥바둥이 육신에 집착하여 왔

네/이제 그 허상을 끊고나니/삼천대천세계 무너진 다네/겹외선종일랑 까마득하니/허공 알록달록 장식 말라.

진혈청료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장로산 설봉산 아육왕산 용상사 경산 승선현효선사 등 여섯 곳인데, 이 가운데 최초의 장로산에서의 설법만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그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어록이다. 여기에서 진혈은 깨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현성공안(現成公案)을 크게 강조해 목조선법의 사상을 현창했다.

“현성공안은 남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과 나 자신이 곧 현성공안이다.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고, 소리와 색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며, 움직임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고, 말하는 것과 침묵이 그대로 현성공안의 진실이다. 그러나 일용사의 견문각지가 그대로 현성공안의 순수진리 아님이다.”

현성공안이란 진리가 본래부터 어떤 조작도 없이 있는 그대로 완성돼 있고 나아가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성공안의 강조는 진혈의 상당법어 뿐만 아니라 기타의 <신심명>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 유령에 있어서도 활계(活計)의 현성, 임운(任運)의 현성, 밀밀(密密)의 현성 등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 진어법계에 나와 남이 있어, 숨고 드러남이 동체이며, 능과 소의 분

별이 모두 사라지고, 높고 낮음이 두루 비쳐 일용사에 끝이 없는 모습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법으로써 법을 듣고 마음으로써 마음을 구하는 것도 곧 자신이 법을 듣고 자신이 마음을 구하는 것이어서 불법의 작용 아님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하지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존(本尊)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혈은 “피부를 탈락하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를 마치 높이 떠오른 태양처럼 밝게 비추어 지금 이 곳 면전에 적나니(赤裸裸) 적색(赤)해(灑灑)하게 나타나 있다. 이것을 평상심이라 한다”고 말한다. 진혈은 참으로 오직 깨침의 자각을 위한 좌선수행에 진지하게 매진했던 선사이다. 진혈에게서 불조의 등불은 동서로 이어져 오면서 깨침을 법칙으로 삼기에 오직 깨달음으로만 상응한다. 이것을 진혈은 조동의 종지로 전해 더욱더 심화시켰다. 그 모습은 마치 북소리와 노래가 어울리고 정(正)과 편(偏)이 열린 관계로 작용한다.

■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수행산거(修行山居)50X65cm 2007 봄, 한지수묵담채, 담원 김창배 작.

제28회 까규 기원 대법회 안내

인류의 평화와 행복, 환경 보호를 위한 까규과의 기원 대법회가 인도 보드카야 대탑에서 열립니다. 제 17대 까르마빠 존자님과 전 세계 까규과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올리는 신심나는 세상에 한국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제 1대 까르마빠께서 태어나신 지 탄생 900 주년 행사와 법문과 관정 등의 법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 12월 8일 ~ 9일 : 900주년 오픈 행사
- 12월 10일~12일 : “보리도동론” 법문
- 12월 13일 : 구루린 보체 관정식
- 12월 15일~22일 : 까규 기원대법회 (까규원람)

- 구체적 일정과 경비는 참석 인원과 비행기좌석 사정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 예상 일정 : 12월 5일 ~ 12월 23일
- 예상 경비 : 200만원 정도
- 11월 5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로 가는길 070-8680-4177 김정기
- 인도 : 91-98053-28423 정공스님
- www.kagyumonlam.org

입종안내

和諍平和中央敎院 現代佛敎曹溪宗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함께 정진해 갈 승려, 법사, 포교사의 무무 동참을 바랍니다.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입종자격 : 승려, 재가법사, 재가포교사
- ◆구비서류 : 종단 입종신청서 양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 사진 3장
- ◆문의처 : 동화스님(총무원 보광사 주지, 총무원장) 011-769-0300
보광사 전화 042)283-5896
팩스 042)283-5894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 보광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사찰대출안내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으며 도와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대출이자는 1억원 대출시 월62만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2 대출상환은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개인명의 뿐아니라 단체명의 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상무 이강욱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술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술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술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 631-0108 FAX 063) 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